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허업 |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지원팀장

1. 개요

가. 지원배경

한국전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배양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소기업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를 신기술·신지식 집약형으로 고도화하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는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지원목적

한국전력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오랜 전력사업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화시키는 한편,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을 지

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생력과 국제경쟁력 배양으로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회사와 중소기업간 기술의 공조·공존·공영 등 새로운 공유가치를 통해 함께 성장·발전하는 동반자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기자재의 개발 및 적기 확보로 전기품질의 고도화와 전력원가 절감으로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송배전분야 전력기자재 제조 및 S/W개발업체로서 예비창업자는 물론 전기공사업체, 전기관련협회 및 관련조합 등의 부설연구소이다. 지원분야는 신기술 전력기자재 개발 및 국산화 연구개발사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은 물론 ISO 등의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과 해외시장개척 지원, 국제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 지원규모

'93년부터 '04년까지 12년간의 지원총액은 약 2,769억원이며, '04년도 지원규모를 한준호 사장의 취임('04.3)이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정책에 더욱 부응하고자 계획된 158억원을 초과한 1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5년/208억원, '06년/28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지원내용 면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의 내실을 기할 계획으로 있다.

2. 주요 지원사업 내용 및 실적

가. 협력연구개발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5억원 까지 지원하고, 우수평가과제의 연구책임자



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며, 개발대상은 송배전용 기자재와 핵심부품 및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물론, 심야수요 창출을 위한 냉·난방설비 등의 개발도 포함된다.

그리고 한전직원으로 지적재산권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전력벤처 창업을 희망할 경우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는 社內創業(Spin-off)과 창업후 1년이내의 전력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설비, 장비활용과 기술, 경영 및 정보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Incubater)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현재까지 사내창업은 3명, 인큐베이터는 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협력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지원실적과 2005년도 계획은 <표1>과 같다.

나. 정보화 기술개발지원

경영·생산관리 업무 등을 전산시스템화 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내정보화 기술자문 및 ERP시스템 지원, 한전/중소기업간 공동 프로세스 업무처리를 위한 ERP시스템 기능개선 등이 있다. 한편 지원대상을 '04년부터 기존 한전의 납품 또는 입찰참가 실적업체에서 전기·전자, 기계분야 관련업

체로 확대하며 지원금액 또한 7천만원 한도에서 1억원 한도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실적과 2005년도 지원계획은 <표2>와 같다.

다.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개선 및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와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 전력기자재를 제조·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ISO 9000, 14000시리즈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5백만원 한도에서 무상지원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토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Single PPM 품질혁신운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및 인증획득 심사비용을 지원하고, 유망전력벤처, 싱글PPM 인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기술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PL협회와 협약을 체결(2005.3월)하고 교육훈련비용 및 수준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도, 품질관리 및 표준화 사업에 관련된 기술지도, 시험측정 및 분석장비 제공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기술지도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분	1999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005계획
과제수	284	36	17	22	18	41	418	22
금액	483	46	14	34	24	40	641	58

(단위: 억원)

<표2>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분	1999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005계획
지원건수	49	4	5	7	16	47	128	60
금액	61	4	3	5	9	26	108	42

(단위: 억원)

〈표3〉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구분	1999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005계획
건수	184	79	97	96	102	75	633	150
금액	1,573	391	473	477	509	383	3,806	660

* 해외규격인증 46건 / 지원액 223백만원 포함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연도별 지원실적 및 2005년도 지원계획은 〈표3〉과 같다.

라.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시장개척과 국제전시회 출품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판로를 확보하게 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해외바이어 및 관련단체·업체 등과의 수출상담의 장소를 주선하여 중소기업이 해외판로를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게하고 있다.

'95년도 처음 시행한 이래 '04년까지 국제전시회는 21회/7.4억원 지원에 606개업체 참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29회/5.5억원 지원에 426개업체가 참가하여 수출계약액 약 9천1백만불, 수출상담액 16.8억불을 시현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과 국제경쟁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전본사 자재처(중소기업지원팀)를 비롯한 8개소에 중소기업기술지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전력사업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 기술 및 정보에 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마. 중소기업 우수개발제품 국내외 홍보

한전은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을 위해

케이블 채널 매일경제 아리랑 TV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홍보 프로그램은 매일경제TV와 아리랑TV에서 각각 24편씩 총 48씩 방영될 예정이며 한전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를 중심으로 제품의 개발과정과 기업성공 노하우 등을 홍보한다. 경제전문채널인 매일경제는 국내 홍보를 전세계 185여개국에 방송되는 영어방송인 아리랑 TV는 국외 홍보를 중점적으로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프로그램 제작 사업은 그동안 주로 정부차원의 주도 하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공기업에서는 우리 회사가 최초로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3.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성과

(1) 신제품·국산화 개발 및 국제경쟁능력 향상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전력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한 신기술·신제품 연구과제는 418건으로 연구결과 출원된 지적재산권은 총 81건이며, 개발제품 판매액은 2,70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원가 절감은 약 1,061억원, 수입대체효과는 약 4,034억원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연구개발 성공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대체효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보화 및 품질향상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 제고

중소기업의 사내 정보화 지원으로 전력사업자의 공동 이익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633건의 ISO 및 해외규격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우수기능인력(송전, 배전, 활선전기원)도 3,843명이 양성되어 산업현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앞으로 전력설비의 신뢰도 증진은 물론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신규 고용인력 창출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한 결과 수출계약액 9천1백만불을 실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해외마케팅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내창업 및 인큐베이터 육성에 따라 신규 벤처인력만 연 42,300명을 고용·창출하였다.

(4)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 확보

이러한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공기업으로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전력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업이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7.4월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EBI 에디슨 대상 수상에 기여하였으며 '00.4월에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범모델로 선정되었고, 동년12월 산업협력대상 『대·중소기업 협력』 부문 1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04.5월에는 정부로부터 Single PPM 우수 모기업 단체부문에서 대통령상, '04.12월 중소기업 제품 우수구매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당해 사업에 대한 외부의 깊은 신뢰성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나. 향후 계획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하여 향후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전력그룹 차원의 지원 체제 확대를 통한 입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상생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제도를 신설중이며,

낙후된 소재산업과 에너지 관련분야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핵심소재개발과 신 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분야를 협력연구개발대상 과제범위로 확대하고, 기술 및 자금 지원으로 원가절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집중지원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지원제도 신설 및 운영,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공급하여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술혁신촉진하기 위한 대기업 퇴직 인력 활용 및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참여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지원강화를 위하여 보육센터 확충과 시설 현대화 및 지원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전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원촉진 Workshop 개최하고, 전력그룹사간 지원사업 분위기 확산 및 성과측정과 차별화된 지원제도 발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력그룹사 지원성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신제품 연구개발 성공모델과 개발제품의 해외판로 개척모델 등 성공모델을 정립운영하고 우수제품 개발과 품질수준향상, 한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해외판로 개척 등 매출신장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도와와 기술자생력을 배양하는데 기여 할 것이며,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한전이 직접 주관하여 파견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